

# 염전 파문 이어 전남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불거지나

미국 정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폭행·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조사  
진도·완도·영암산단 중점 점검 예상에 농수산물 수출 타격 우려  
전남도, 인권보호 종합대책 마련하고 고립 해소·안정 정착 추진

미국 정부가 공정 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수입을 전격 차단한 데 이어 전남지역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남 지역 농·수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미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상황에서 전남 수산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국 수산 1번지인 전남의 다른 분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정의당 전남도당,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은 전남 수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6개 시·군에서 1853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김·전복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3419명이 머물며 일하고 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여권 압수·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경보호청은 지난 2일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바 있다.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 임금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된 데 따라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지역 수산업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인도보류명령이 다른 수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액(3조 1127억)만 전국(8조 1898억)의 38%를 차지한다. 지난해 바다에서 거둬들인 수산물 생산량도 191만 t으로, 전국(326만 8000 t)의 58%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다.

18만 7459ha의 바다에 만들어져 있는 양식 어장은 전국 양식어장의 65.0% 수준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양식 생산량(173만 5000 t)은 전국의 76.4%다.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데 필요한 배만 2만 6933척으로, 전국의 41.9%다.

## ■전남 해양·수산 현황 (2023년말 기준)

| 구분      | 현황        | 전국대비(%) |
|---------|-----------|---------|
| 어선보유대수  | 2만6933척   | 41.9    |
| 수산물생산량  | 191만t     | 58.4    |
| 수산물생산액  | 3조1127억원  | 38.0    |
| 양식생산량   | 173만5000t | 76.4    |
| 양식생산액   | 1조8050억원  | 57.5    |
| 수산가공생산량 | 28만2000t  | 23.3    |
| 수산가공생산액 | 1조9933억원  | 26.3    |
| 천일염생산량  | 18만9000t  | 90.8    |

수산가공 생산량도 28만 t에 달해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조미김) 수출액은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정의당 전남도당 등도 이같은 점을 감안,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국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신 매매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문경옥 정의당전남도당 사무처장은 “미국 정부가 김 양식장이 다수 위치해 있는 진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다수 포진한 영암 산단, 전복을 생산하는 완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남도도 최근 ‘취약 분야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7개 세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고립 해소 ▲고용주 및 근로자 인식 개선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일상회복 지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나서 실태조사와 후속조치를 면밀히 실시해야 한다”며 “전남도 등이 법무부와 협조해 이주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광주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남구는 지난 2017년부터 구름다리 추락사가 잇따르면서 예방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난간 높이고 울타리 설치 등 보강했지만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 잇단 사고 ‘골머리’

### 2017년 이후 7명 추락 사망

### 남구, 그물망·CCTV 설치 추진

광주시 남구가 추락 사건이 끊이지 않는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5년 전부터 난간을 높이고 진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는등 안전 시설을 보완하고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왔지만 추락사가 잇따르면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제석산 구름다리가 지난 1999년 지어진 이후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7

건의 추락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3월, 20대 2명이 각각 숨졌고, 2018년 4월에 60대 1명, 2022년 5월 60대 1명, 2024년 1월 20대 1명이 추락사했다.

올해에도 지난 2월 40대 A씨가 안전시설을 스스로 넘어가 추락했고, 지난 21일에는 30대 B씨가 홀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 시설 개선에 나섰다. 우선, 난간 높이를 기존 1.2m에서 2m로 높였고 다리 난간에 쉽게 올라서지 못하도록 루크구조도 개선했다. 난간 상단부에도 ‘롤러식’ 구조물을 설치, 손으로 잡기 어렵게 했다.

## ‘돈 봉투 의혹’ 나주시의원 등 3차 압수수색

###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광주일보 4월 2일 6면>과 관련, 경찰이 관련 시의원 등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실시했

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된 복수의 나주시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특정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께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시의원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중

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용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MODERN

사무실

공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광주광역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